

# “저축銀 피해 6천만원까지 전액 보상”

### 국조특위, 당초 2억서 후퇴...이르면 9월 지급 정부 반발·포퓰리즘 입법 비판 여론 의식한듯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 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는 9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금보장한도(5천만원)보다 1000만원 많은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하는 방안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억원까지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이는 ‘2억원 전액 보상’ 방안이 금융시장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정부측 반발과 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의 ‘선심 입법’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대책소위는 이날 대책회의를 통해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나머지 구간 차등보상’ 방안이 의결을 보았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6000만원까지는 전액 지급하며 그 이상은 구간을 나눠 보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는 1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 1인당 2억원까지 보상해줄기로 한 것과 관련,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재정 규율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피해자들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야 하나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예금자가 냈던 이자소득세까지 거론하는 것은 논리에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잘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현재 국제금융 시장의 혼란을 거론, “이렇게 휘둘러면 국제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9년 영영정지된 유사금융기관 피해자들의 형평성 문제와 장차 발생하게 될 유사사태에 대한 좋은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예금보험 보장한도를 넘는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에 대한 사실상의 전액보상은 금융시장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후순위채권을 보상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금이 아닌 채권을 보상하는 것은 자기투자에 대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본주의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국회 국조특위도 저축은행의 법인세 등을 이용해 특별기금을 조성한 뒤 피해를 보상할 방침으로 알려졌지만 ‘눈거리고 아웅’식의 편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우제창 의원과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야 5당 정책연대 출발부터 ‘삐걱’

### 한진중 사태 등 현안 논의 첫 협의회 민주·창조당 불참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 5당이 한진중공업 사태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연대에 시동을 걸었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9일 열린 첫 정책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정책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부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창조한국당은 정책 책임자의 부재 등을 이유로 각기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 이의열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과 박영선 정책위의장이 오기로 했다는데 아직 최고위원회에서 (협의회 참여 여부)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연락

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실무적 혼선도 빚어졌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만 참석한 가운데 ▲한진중공업 정리하고 사태 해결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확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지지 방안 등을 향후 논의 과제로 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날 간담회에서 민노당 이의열 정책위의장은 “야 3당만으로 오늘 간담회를 하게 된 것은 사안의 시급성에 비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정책연합이 화두가 되고 있다. 그 기간은 자리 배반이 아니라 정책공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윤남일 부대표는 “야 5당은 이미 6·2 지방선거나 4·27 재보궐선거를 통해 지속적으로 합의의 사활을 만들어 왔다”며 “야 5당의 정책협의의 내용과 구체적 실행이 내년 총선 연대의 내용과 수준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근혜 “지명직 최고 호남·충청 한 명씩 해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9일 홍준표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호남 배제론’ 논란과 관련, 관례대로 호남과 충청에 각각 한 명씩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은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당”이라며 “그 정신에 맞게 지명직 최고위원도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관례대로 충청과



호남 지역에 한 명씩 임명해야 한다는 뜻이나”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런 뜻”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호남·충청에 한 명씩 임명하는 것은 관례대로 충청과 호남에 각각 한 명씩 임명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그런 뜻”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호남·충청에 한 명씩 임명하는 것은 관례대로 충청과 호남에 각각 한 명씩 임명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청와대 민정수석 현직이나 전직이나

### MB, 노환균 고검장·황희철 차관 등 후보군 놓고 고민

이명박 대통령이 공석인 청와대 민정수석 인선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검증된 후보 명단을 제출했지만 이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고민은 현직 검찰 출신의 기용 여부다.

일단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는 임기 후반기에 검찰 조직과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현직의 검찰 간부가 민정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직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기용할 경우, 야권에

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론이 검찰 조직을 장악, 선거 중립성을 훼손하려 한다”며 파산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현재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제출한 후보군 가운데 현직은 노환균 대구고검장(14기, 경북), 박용석 대검찰청 차장검사(13기, 경북), 황희철 법무부 차관(13기 광주)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에서 광주·전남지역 출신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광주 출신의 황희철 차관이 전격적으로 발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전직 중에서는 최근 사직한 조근호 전 법무연수원장(13기, 부산), 황교안(13기, 서울) 전 부산고검장과 로펌 소속인 김희선(10기, 경북) 변호사, 정진영(13기, 대구) 전 인천지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정수석에 유력하게 거론됐던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은 최근 지인들에게 “공직은 더 이상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르면 11일 권재진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민정수석 후임 인선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권재진 법무·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

##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무산

권재진 법무장관·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보이콧’ 하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 결과 임명을 거부할 정도의 흠결이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보고서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에서의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두 내정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며 “무수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공직 후보자들은 스스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민주당이 보이콧 입장을 밝혀줌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한나라당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조만간 두 내정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음성채널의 신기원

### 대한민국 최초 무료음성커뮤니티

진실입니다!  
그동안 비싼 060 정보이용료나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내야만 사용할 수 있었던 음성채팅서비스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정말 공짜입니다!  
정보이용료 무료  
회원가입비 무료

일반 전화요금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은 추가비용이 단 1원도 없이 그냥 일반요금입니다.  
직접확인하세요!

휴대폰만 사용 가능합니다. 오 사 이 오

남여 공통 **1,688-5425**

보급보급방 >>> 01번 음성소셜방 >>> 07번 여행정보방 >>> 12번 연인만들기방 >>> 09번 매너남남방 >>> 10번 1:1 대화방 >>> 19번

14년 전통 하트톤

가입문의 **062-526-7958** 전국 최저요금제

여성무료 **080-331-7958**

365일 24시간 비회원 연결

소자본, 무점포, 고소득 ARS사업자 모집 **010-3608-2888**

## 사무실 임대

금남로 4가 구, 삼성생명 건물  
구, 중앙교회 건너편

- 지하 1층~지상 6층
- 층별 107평 (분할가능)

병원, 학원등  
다양한  
업종가능

문의 **062-953-5511**  
**010-3617-8810**

###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처세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동강대학교

관상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 여정이자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남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병법에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낮 놓고 기차도 모른다’ 면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곡사주란? 우주의 천시를 풀이한 귀곡사주! 사주풀이가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곡을 하고 도망갔다 하여 이름 붙여진 귀곡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 공개합니다.

대학교별	교육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기관전화
조선대학교	관상학 초급	8월 30일부터 매주 화요일	19-22시	150,000원	230-7700-2
	관상학 고급	9월 2일부터 매주 금요일	19-22시	150,000원	
동강대학교	사주명리학 초급	9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	19-21시	120,000원	520-2516
	사주명리학 고급	9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	19-21시	120,000원	

● 조선대 등록 - 8월 1일부터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등록  
- http://www.chosun.ac.kr/lifelong  
- 광주은행 004-107-000152(예금주: 조선대 평생교육원)

● 동강대 등록 - 8월 1일부터 ~ 전화 등록후 입금 또는 직접등록

장학특전 노령자, 장애자, 생활수급자, 복수과목 감면 신청 등

교육전담강사 소속 동양철학 연구원장 김경준

문의: 각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0-3644-7232

## 특별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위/한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2011년 제7기)

- 개강일시: 2011. 9. 5(월) 기초주강반 9:00, 기초이강반 18:00 심화주강반 9:00, 심화이강반 18:00
- 개강장소: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1. 8. 1(월) ~ 2011. 9. 2(금)
- 수업기간: 2011. 9. 5(월) ~ 2011. 12. 23(금) (1학기 15주 105시간)
- 수강료: ₩360,000
- 모집인원: 기초반 - 주간반, 야간반 각 30명  
심화반 - 주간반, 야간반(기초 진급생과 편입생 약간명)  
\* 기초반 수료 정도의 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편입 가능
- 수업시간: 매주 월요일, 금요일 - 주간반 09:00~12:30  
- 야간반 18:00~21:30

● 수료 후 특전

-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2단계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 ① (사)한국공공민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현문화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토,일 공휴일 휴무)

- 전화 ☎ (062) 530-3873~3876  
담당교수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sle.jne.go.kr7